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5.12.19

DEC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478.60원 (+6.2원)

KOSPI

3,994.51 (-61.9, -1.53%)

KOSDAQ

901.33(-9.74, -1.07%)

국고채 10년 금리

3.312(-0.012%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신흥국 전략

인도, 기록적인 외국인 순매도의 배경 [김근아]

산업분석

방위산업

UJTS 사업 RFP 공개 지연: 나쁘지만은 않은 뉴스 [채운샘]

Weekly

통신

연말엔 KT와 KMW를 추천드려요 [김홍식]

글로벌리서치

마이크론(MU.US)

컨센서스는 상회, 가이드언스는 상향 [김록호]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KT, S-Oil, 이수스페셜티케미컬, 파라다이스, 지역난방공사, 한국단자, 아이에스동서
세아홀딩스, 인투셀

하나증권



인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5년 12월 19일 | Global Asset Research

신흥국 전략

인도, 기록적인 외국인 순매도의 배경

미·인 관세 협상 지연, 루피화 약세, AI 랠리 소외 삼중고에 직면한 2025년

2025년 외국인 투자자들(FPI)은 인도 증시에서 지속적인 순매도를 기록했다. 12월 중순까지 누적 순매도 규모는 약 184억 달러에 달해, 팬데믹 당시(-165억 달러)를 포함한 과거 어느 해보다도 큰 폭의 자금 유출이 발생하며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순매도 기록을 경신했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우선 미·인 관세 협상 지연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의 장기화가 자리한다. 통상 이슈를 둘러싼 정치·외교적 변수들이 반복적으로 부각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그 결과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이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수출 부문의 달러 유입이 둔화되는 반면 수입 부문의 달러 수요가 확대된 가운데 대규모 외국인 자금 이탈까지 겹치면서 인도 루피화는 달러당 90루피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약세가 심화됐다. 그 결과 루피화는 주요 신흥국 통화 가운데서도 가장 큰 절하 폭을 기록했고,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환손실 우려가 부각되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인도 증시에 대한 진입 장벽이 한층 높아지는 악순환이 형성됐다.

AI 랠리 역시 불리하게 작용했다. 2025년 글로벌 증시는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신흥국 자금 유입이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글로벌 자금은 한국·중국 등 AI 비중이 높은 시장에 집중됐다. 반면 인도는 AI 산업이 아직 성장 단계에 머물러 있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모습이었다.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테마 편중과 대외 불확실성이 겹치며 추가 반등이 제한되는 구도가 이어졌다.

다만, 이러한 대규모 외국인 자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비교적 제한적인 조정에도 그치며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는데, 이는 로컬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유입이 수급 측면에서 완충장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매도 물량을 로컬 자금이 상당 부분 흡수하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고, 그 결과 인도 증시는 외국인 비중은 크게 낮아졌지만 내수 자금이 시장 기반을 유지하는 구조가 한층 뚜렷해졌다.

한편 최근 글로벌 증시는 AI 관련 종목들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며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당분간 AI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경우, 테마 중심의 쏠림보다는 자금 재배치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인도는 높은 성장률과 견조한 내수, 비(非)AI 중심의 구조적 성장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AI 편중이 완화되는 국면에서는 신흥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재평가될 여지도 존재한다. 또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외 불확실성 완화와 함께 루피화 변동성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율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25년은 인도 증시가 미·인 관세 협상 지연, 루피화 약세, AI 랠리 소외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한 해였다. 향후 대외 불확실성과 글로벌 테마 쏠림이 완화될 경우, 점진적인 수급 개선과 함께 반등 여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5년 12월 19일 | 산업분석_Update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5년 12월 18일

현대로템(064350)

BUY | TP 283,000원 | CP 175,000원

한국항공우주(047810)

BUY | TP 135,000원 | CP 109,400원

방위산업

UJTS 사업 RFP 공개 지연: 나쁘지만은 않은 뉴스

미국 정부 섯다운으로 UJTS 사업 RFP 공개 일정 지연

미국 UJTS(Undergraduate Jet Training System) 사업의 RFP(Request For Proposal) 공개 일정이 지연됐다. 2025년 12월이 목표였으나 미국 정부 섯다운 영향으로 2026년 1월 말에 RFP 초안을 공개하고 2026년 2월 말에 최종 RFP를 공개하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됐다. 최종 계약 예상 시점도 2027년 1월에서 FY2Q27(2027년 1월~3월)로 조정되었다. 다만 일정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의 방향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번 미국 정부의 섯다운은 11월 12일 임시예산안이 통과되며 일시적으로 해소된 상황이다. 2026년 1월 30일까지 본예산 또는 추가 임시예산안이 통과된다면 2026년 2월 말에 예정된 RFP 공개 일정은 지연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높아진 도입 대수와 양산 계획 제시

12월 RFI(Request for Information) 업데이트에서 UJTS 사업의 총 도입 대수와 생산 램프업 계획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총 생산 규모는 약 216대이며 저울양산은 1차 7대, 2차 12대, 3차 20대로 합계 39대, 이후 완전양산은 연간 25대로 제시됐다. 그동안 공식 자료 기준 최소 도입 물량은 145대 이상(2023년 8월 RFI)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수치는 이를 크게 상회했다. 연도별 생산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2027년 1~3월 최종 계약을 가정하면 대략적인 양산 타임라인은 시제 제작과 시험평가를 거쳐 2028년~2030년 매년 각각 7대, 12대, 20대의 저울양산, 2031년~2037년 매년 약 25대 훈련기를 완전양산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RFP 공개 일정은 지연됐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뉴스로 판단한다.

2026년은 한국항공우주에 실적과 모멘텀이 집중되는 한 해가 될 전망

2026년 2월 UJTS 최종 RFP가 발행되면 시장의 관심은 어느 컨소시엄이 수주를 확보할지에 쏠릴 것이다. 현재 참여 의사를 공개한 주요 팀은 한국항공우주-록히드마틴, 보잉-사브, 레오나르도-텍스트론, SNC로 총 4개 컨소시엄이다. 수주 가능성은 RFP 평가 기준 공개와 각 컨소시엄들의 제안서 제출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한국항공우주-록히드마틴 컨소시엄은 UJTS 사업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2026년 한국항공우주의 실적은 완제기 인도 증가와 KF-21 본격 양산으로 전년대비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영업이익 기준 YoY +44.0% 추정, 컨센서스 YoY +53.3%). 여기에 UJTS 모멘텀까지 더해지면 2026년은 실적과 이벤트가 동시에 집중되는 구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



Analyst 채운샘 unsam1@hanafn.com

연말엔 KT와 KMW를 추천드려요

통신서비스 Weekly | 2025.12.19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주간 동향 및 코멘트

다음주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2026년 초엔 밸류업과 피지컬 AI가 주식 시장에서 핫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렇다면 KT와 KMW를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 3차 상법 개정 본회의 통과 시 KT가 이제 자사주가 아닌 전액 배당으로 주주 환원을 진행할 것이란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고 결국 피지컬 AI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5G Advanced가 도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현재 KT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49%로 한도를 꽉 채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KT는 자사주를 소각하기 어렵다. 외국인 한도를 초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3차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의무 소각 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당장 2026년 4월 1분기 배당 지급 분부터 배당금을 크게 증액 시킬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5년 KT 주주환원수익률은 SKT와 LGU+ 대비 1~2% 가량 높게 형성되었다. 그만큼 저평가되었다는 것인데 가장 큰 이유는 외인 한도 소진 문제로 LGU+와 달리 자사주를 당장 소각하지 못한다는 약점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주주 환원을 전액 배당금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져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해소가 기대된다. 세전 기대배당수익률 5% 수준까지 KT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면 2026년 상반기 내 76,000원까지도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피지컬 AI는 과거 5G 도입 시절 5G IoT를 연상하게 한다. 결국 AI가 머리, 로봇이 팔다리 역할인데 5G SA를 기반으로 한 5G Advanced가 싹틔줄이라고 보면 되겠다. 즉 5G SA가 피지컬 AI의 초저지연/초고속/초연결 성장을 보장하게 되는 셈이다. 2026년도엔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5G SA가 보편화될 것인데 이는 LTE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독립 네트워크로서 자율주행/로봇/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2019년 기대했던 LTE와 차별화된 진짜 5G가 결국 2026년도엔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게 될 전망이다. 2026년도엔 또 다시 5G SA 테마가 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5G SA로의 진화와 더불어 신규 주파수 할당에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짜 5G라 불리는 5G SA 도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G SA가 피지컬 AI의 핵심 인프라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의 경우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만 산정되었을 뿐 5G 신규 주파수 경매에 대한 얘기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2026년 상반기까지도 새로운 5G 요금제 출시 및 5G 신규 주파수 투자 붐을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결국 국내도 규제 기관 주도 하에 AI 육성을 위해 네트워크 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인프라 하에선 초저지연,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도 세계 네트워크 경쟁 상황에 밀려서 5G 네트워크 진화가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AI가 현재까지 전력 수요 확충과 광 투자 증대를 이끌고 있다면 곧 RF 투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국내 기지국 장비 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 다음주 통신서비스 업종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KT>LGU+>SKT 순으로 제시한다. 통신 3사 중에선 보유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및 배당 분리 과세 적용 수혜주이면서 탑 수준의 기대배당수익률을 자랑하는 KT를 최우선 종목으로 제시한다. 통신장비 업종에선 미국 주파수 경매 수혜주인 KMW, RFHIC, 이노와이어리스를 단기 추천한다.

2025년 12월 19일 | Global Equity

Micron(MU.US)

컨센서스는 상회, 가이드언스는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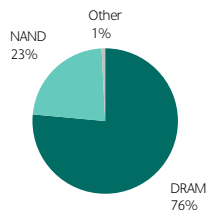
미국

TP(컨센서스) 284 USD
CP(12.18) 226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ASDAQ GS
산업 분류	정보기술
주요 영업	반도체 & 반도체 장비
홈페이지	www.micron.com
시가총액(십억USD)	253.8
시가총액(조원)	375.2
52주최고/최저()	264.75/61.54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9.30
CAPITAL GROUP COMPANIES INC	8.71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6.8) 87.4 117.1
상대	(7.5) 75.1 102.6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EUR)

투자지표	2024	2025F	2026F	2027F
매출	25,111	37,378	63,629	78,091
영업이익	1,304	9,770	30,478	39,205
순이익	778	8,539	27,052	34,460
EPS(USD)	1.3	8.3	23.4	29.9
EPS(YOY, %)	-129.2	537.7	181.8	28.1
ROE(%)	1.7	17.2	37.1	33.1
PER(배)	134.3	15.8	9.7	7.5
PBR(배)	2.3	2.5	3.2	2.3
배당률(%)	0.1	0.4	0.3	0.4

자료: Micron, Bloomberg



Analyst 김록호 rokokim@hanafn.com
RA 김영규 kyg1019@hanafn.com

FY1Q26 Review: DRAM/NAND 모두 출하량 증가와 가격 상승 진행

Micron은 회계연도 26년 1분기 매출액 13.4억 달러(YoY +57%, QoQ +21%), Non-GAAP 기준 EPS 4.78 달러(YoY + 167%, QoQ +58%)를 기록했다.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각각 5%, 21% 상회했다. EPS 상회폭이 컸는데, 급격한 가격 상승과 비용 절감 및 믹스 효과가 주효했다. DRAM B/G는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했고, 가격은 약 20% 상승했다. 타이트한 공급이 이어지며, 출하량은 플랫한 수준이었지만, 가파른 가격상승이 실적을 견인했다. NAND B/G는 약 7% 증가했고, 가격은 약 15% 상승했다. 지난 분기와 달리 출하량 증가와 가격 상승 동시에 나타났다. 서버 중심의 강한 수요로 인해 모바일을 제외한 모든 전방산업에서 출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량은 출하량 증가가 제한적이었지만, 가격 상승을 기반으로 호실적을 달성했다.

FY2Q26 가이드언스: 사상 최대 매출액과 사상 최고의 수익성 제시

다음 분기 가이드언스로 매출액 183~191억 달러, Non-GAAP 기준 매출총이익률 67~69%, EPS 8.22~8.62 달러를 제시했다. 중간값 기준 Bloomberg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30%, 매출총이익률은 12.4%p, EPS는 79% 상회했다. 견조한 수요와 타이트한 공급에 따른 가파른 가격 상승을 바탕으로 사상 최대 매출액과 매출총이익률, EPS를 제시했다. 서버용 메모리 수요를 중심으로 타이트한 공급이 지속되면서, 회계연도 2분기에도 가격 상승과 비용 절감 및 믹스 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DRAM과 NAND 모두 수요 전망 상향. 전방산업별로도 모바일 외 전부 상향 조정

지난 분기에 이어 수요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구체적으로 CY2025 DRAM 수요 성장률은 기존 10% 후반에서 20%로, NAND는 기존 10% 중후반에서 10% 후반으로 상향했다. 어플리케이션별로는 서버 출하량이 기존 10% 성장에서 10% 후반으로, PC 출하량은 한 자릿수 중반 성장에서 한 자릿수 후반 성장으로 상향했다. 스마트폰 출하량은 한 자릿수 초반 성장을 유지했다.

또다른 포인트는 NAND의 장기 공급계약 논의였다. HBM 장기 공급계약을 시작으로 일반 DRAM을 넘어 NAND까지 장기 공급 계약이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서버용 중심 메모리 전체의 공급이 타이트해짐에 따라 고객사들이 안정적인 공급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자동차 부문의 성장세다. 자동차 부문은 이번 분기에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L2+ 및 L3 채용 확대에 따라 고성능/고대역폭을 지원하는 DRAM과 고용량 NAND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자율주행은 선도업체인 Tesla를 중심으로 L3를 넘어, L4를 준비 중에 있다. 고성능 자율주행 확대에 따라 자동차용 메모리 수요 확대도 외형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12/15	108,900	107,600	-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KT (030200.KS)	12/15	52,600	53,000	0.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킹 관련 비용, 향후 실적 추정치에 상당 부분 반영된 상태 기대 배당수익률, 세전 7.5%, 배당금 2천만원 이하 세후 6.3%로 대단히 매력적인 수준
S-Oil (010950.KS)	12/15	81,600	80,500	-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증가 감안시, 타이트한 공급 환경 유지되며 정제마진 강세 전망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화 가능성 높아
파라다이스 (034230.KS)	12/15	18,090	16,520	-8.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3Q25 Review 매출액 2,881억원(YoY +8.0%), 영업이익 395억원(YoY +9.0%) 기록 호텔 인수 및 소프트 오픈을 통해 가파른 이익 성장 기대
지역난방공사 (071320.KS)	12/15	108,400	102,300	-5.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3Q25 Review 매출액 7,582억원(YoY +29.6%), 영업이익 894억원(YoY +209.6%) 기록 열요금 변동, 판매량 증감, 원가 변화고 세 가지 변수 모두 양호한 방향 나타내는 중
한국단자 (025540.KS)	12/15	69,900	69,800	-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의 전장화/전동화에 따른 수혜와 고객사 다변화 기대 하반기 미국법인 회복 및 유럽법인 호실적 지속 전망
아이에스동서 (010780.KS)	12/15	22,600	24,050	6.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6년 4월, 3.5조원의 초대형 자체 사업 3,443세대의 경산 중산지구 분양 결정 지방광역시 집값 반등과 대구 미분양 감소 등 긍정적 시그널 감지
세아홀딩스 (058650.KS)	12/15	129,900	124,300	-4.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회사 세아베스틸지주, 미국 텍사스에 항공우주 및 방산용 특수합금 공장 건설 중 고부가제품 판매량 확대에 따른 제품 믹스 효과로 중장기 자회사 실적 모멘텀 지속 전망
인투셀 (287840.KQ)	12/15	64,400	59,000	-8.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내 파트너사와 본계약 및 26년 임상1상 중간 결과 발표에 따른 추가 L/O 기대 BD 인력 보강, 플랫폼 세부 구성 다각화 중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3.12%	+1.05%p	+71.55%	+18.35%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아이에스동서 (010780.KS)	12/15	22,600	24,050	6.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6년 4월, 3.5조원의 초대형 자체 사업 3,443세대의 경산 중산지구 분양 결정 지방광역시 집값 반등과 대구 미분양 감소 등 긍정적 시그널 감지
한국단자 (025540.KS)	12/8	66,700	69,800	4.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의 전장화/전동화에 따른 수혜와 고객사 다변화 기대 하반기 미국법인 회복 및 유럽법인 호실적 지속 전망
케이엠더블유 (032500.KQ)	12/1	15,110	15,300	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럼프 600MHz 광대역 주파수 할당 촉구에 주목, 2026년 대규모 투자 기대 중국 부품 제재 강화, 오픈랜 확대 등의 영향으로 미국 수출 양호한 흐름 지속
지역난방공사 (071320.KS)	11/17	105,200	102,300	-2.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3Q25 Review 매출액 7,582억원(YoY +29.6%), 영업이익 894억원(YoY +209.6%) 기록 열요금 변동, 판매량 증감, 원가 변화고 세 가지 변수 모두 양호한 방향 나타내는 중
삼성E&A (028050.KS)	11/3	25,950	24,850	-4.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CIS 국가들(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에서 가스 등의 프로젝트 참여 예정 26년 사우디 가스(Khafji, 20억달러), 카타르 화학(40억달러) 신규 수주 기대
SK하이닉스 (000660.KS)	10/20	465,500	552,000	18.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3Q25 Review 매출액 24.5조원(YoY +39.0%), 영업이익 11.4조원(YoY +62.0%) 기록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전기 (009150.KS)	10/13	210,500	254,000	20.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포넌트 사업부 외에도 패키지 및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우상향 가시성 확보 고부가 AI 서버 및 전장향 MLCC 공급 확대로 연간 실적 호조 전망
하이브 (352820.KS)	10/13	272,500	305,500	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BTS, 내년 봄 신보 발매를 시작으로 연중으로 대규모 투어 진행 예정 글로벌 주요 거점 지역에서 다양한 현지 아티스트 데뷔를 준비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 기대
삼성전자 (005930.KS)	10/1	83,900	107,600	2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KB금융 (105560.KS)	10/1	115,500	124,000	7.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은행 대비 확대되었던 PBR gap이 좁여지면서 가격 매력 재부각 25년 총주주환원 규모 총 3.01조원으로 총주주환율을 약 53% 수준
한국금융지주 (071050.KS)	10/1	145,000	157,000	8.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호실적 기대 하반기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이후 추가적인 수신 기반 확대 전망
S-Oil (010950.KS)	10/1	62,400	80,500	29.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증가 감안시, 타이트한 수급 환경 유지되며 정제마진 강세 전망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화 가능성 높아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4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1.54%	-4.69%p	+57.69%	+4.49%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AI테크 TOP10 (485540.KS)	2025.07.22	12,290	14,565	18.51%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I 관련 핵심기업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종목.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AI를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Magnificent7와 AI5 기업들에 집중하는 테마 ETF상용화의 영역 확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비된 AI, 신제품 교체 수요들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는 상황. 중국 수출 규제 완화와 트럼프 정부의 AI 육성 정책 모멘텀도 긍정적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7,390	33.77%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WON 미국빌리어네어 (489290.KS)	2025.02.03	13,065	15,680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국 최상위 억만장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로 구성하는 패시브 ETF. 미국에 상장된 주요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Tech, 임의소비재, 커뮤니케이션, 금융, 필수소비재의 5개 업종이 포트폴리오의 90% 이상 비중을 차지. 브로드컴,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50개 우량 종목으로 구성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407830.KS)	2024.09.25	9,690	16,790	7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체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한 해외 플랫폼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액티브 ETF전문화와 분업화 가운데 각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는 기업들을 편입. 테슬라와 구글, 샤오미, 마이크로소프트, TSMC, 텐센트 등이 주요 구성 종목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49.14	339.24	4.02%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SHLD (미국 방산 기술 주식)	2025.06.16	58.83	62.94	6.99%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통 방산기업들과 더불어 AI, 증강현실/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사이버 보안, 연료시스템 등 첨단 군사 기술에 중점을 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각국 정부들이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수혜 전망. 미 국방부의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 전환 정책에 힘입어 견조한 수급 모멘텀 기대
PAVE (미국 인프라 주식)	2025.11.124	38.07	47.88	3.08%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국 인프라 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인프라 테마 ETF. 산업재를 중심으로 소재, 건설장비, 운송,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편입하여 구성금융시장 환경 변화 가운데 향후 정책 모멘텀 반영 가능성. 정치적 관점에서도 리쇼어링은 양당 모두 선호하는 방향성. 품목별 관세의 연속성 고려시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인프라 수요 꾸준히 증가 전망
QGRO (퀄리티 성장주)	2025.01.03	101.56	112.66	10.93%	<ul style="list-style-type: none">성장성과 밸리터를 함께 갖춘 중대형주로 구성된 ETF경제 연착륙 시나리오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성장 모멘텀에 대한 관심 증가. FOMC와 펀더멘탈 퀄리티에 대한 해석이 변화하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견고한 주가 흐름을 유지하며 상대 우위 보여줄 전망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11월 소매판매 (1.3%, 10월 2.9%) 중국 11월 광공업생산 (4.8%, 10월 4.9%) 중국 11월 누적 고정자산 투자 (-2.6%, 10월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12월 자본은행 제조업 PMI P (49.7P, 11월 48.7P) 유로존 12월 HCOB 제조업 PMI P (49.2P, 11월 49.6P) 미국 12월 NAHB 주택시정지수 (39.0P, 11월 38.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11월 수출/입 (6.1%/1.3%, 10월 3.6%/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로존 12월 기준금리 (E 2.00%, 10월 2.00%) 미국 11월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E --/--, 10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11월 소비자물가/선식품 제외 소비자물가 (E --/--, 10월 3.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ECB 12월 통화정책회의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10월 내구재 주문 (E --, 9월 0.5%) 미국 11월 광공업생산 (E 0.1%, 10월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1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지대지수 (E --, 11월 88.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11월 실업률 (E --, 10월 2.6%)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